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임희진 연구위원

Vol.7 2013. 03.

2012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개요 ▶▶▶

| 조사목적 |

- ▶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익명성 자기기입식 조사임. 이 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201호)로, 2009년부터 실시되었으며, 흡수년도에는 생존권·보호권 영역, 짝수년도에는 발달권·참여권을 조사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 ▶ 조사목적은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인권상황에 대한 대표성과 신뢰성이 있는 인권지표를 산출함으로써,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권리 양상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¹⁾

| 조사대상 |

전국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표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사례수(명)	비율(%)
전체		9,093	100.0
성별	남자	4,568	50.2
	여자	4,525	49.8
교급	초등학교	2,729	30.0
	중학교	2,808	30.9
	일반계고	2,246	24.7
	전문계고	1,310	14.4

| 조사방법 |

- ▶ 조사원에 의한 학급단위 자기기입식 조사

| 조사기간 |

- ▶ 2012년 5월 24일 ~ 7월 24일

1) 이 통계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표본비율이며 가중치는 표본추출률, 응답률 및 가중치 사후 보정률을 반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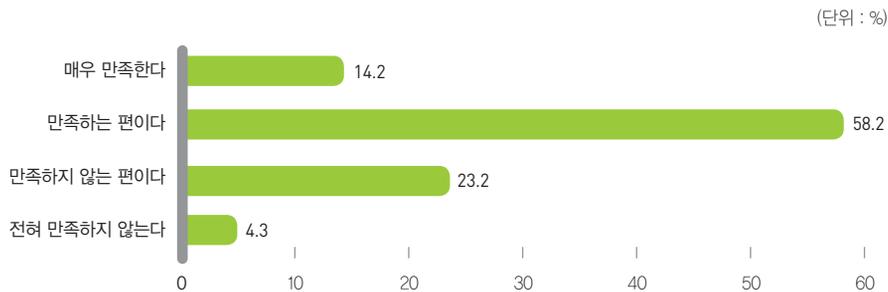


1. 아동·청소년의 교육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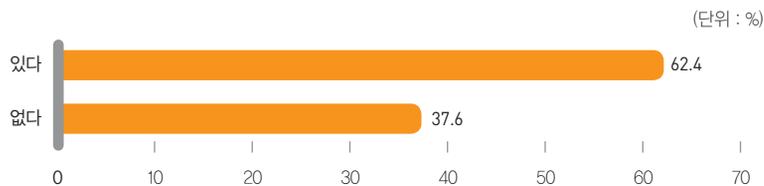
- 아동·청소년의 72.4%는 학교수업에 만족하였으나, 62.4%는 최근 1년 동안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응답
- 주된 이유로는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25.3%)', '공부가 싫어서(18.4%)', '학교 수업이 재미없어서(15.1%)'의 순

- 학교수업에 대해 만족한다는 아동·청소년은 전체의 72.4%인 것으로 나타나, 10명 중 7명 정도는 학교수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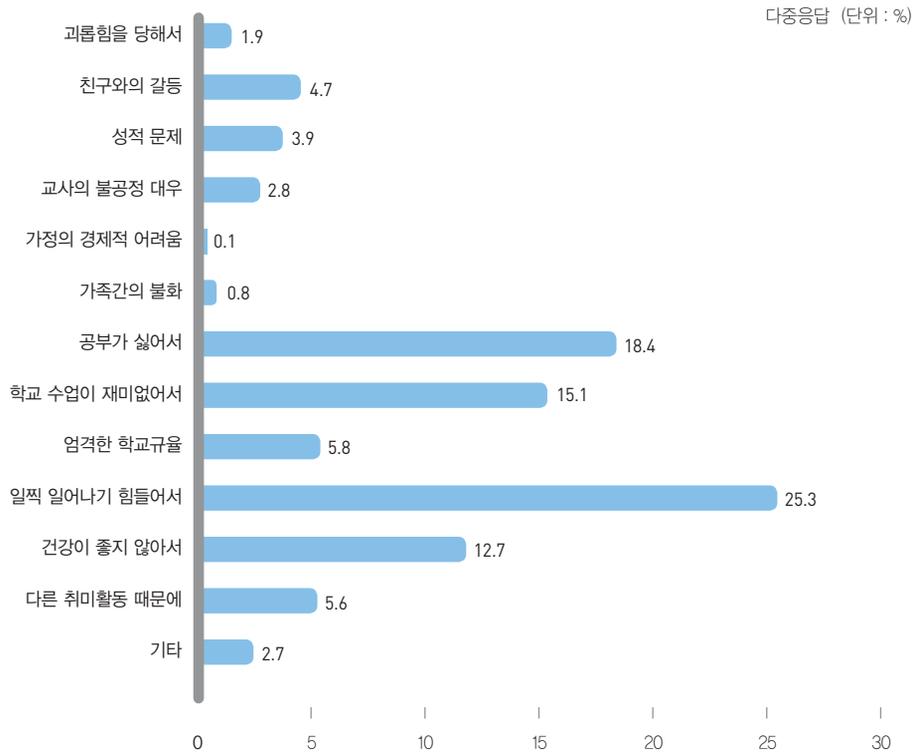
[그림1]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수업 내용에 만족합니까?

- 전체 아동·청소년 중 62.4%가 최근 1년 동안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아동·청소년들의 10명 중 6명 정도가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그림2] 최근 1년 동안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습니까?

-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일찍 일어나기 힘들어서'가 25.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공부가 싫어서(18.4%)', '학교 수업이 재미없어서(15.1%)', '건강이 좋지 않아서(12.7%)'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우리나라의 경우, 교장의 재량에 따라 고등학교의 상당수가 '0교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 등교시간이 이른데다, 방과후 사교육 등으로 인해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시간이 늦어 아동·청소년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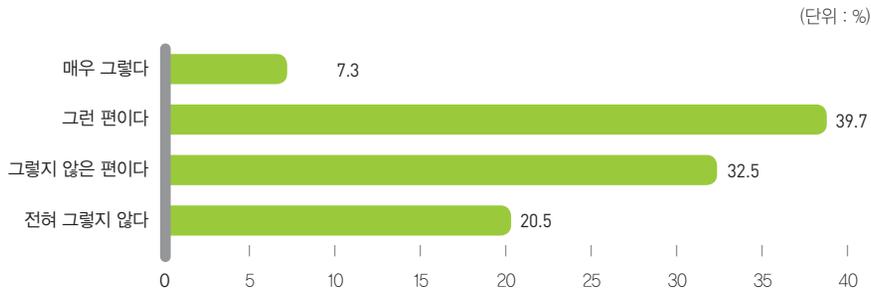
[그림3]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2.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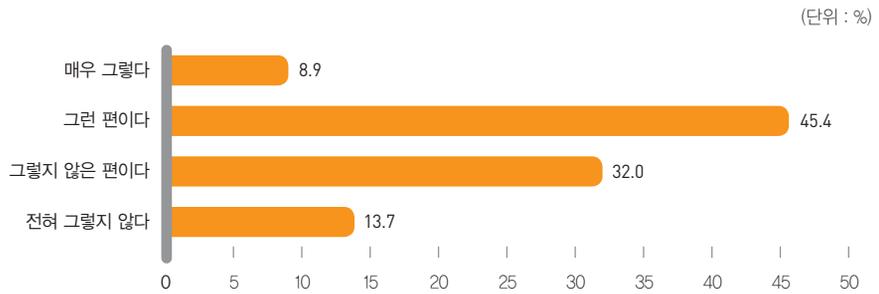
- 과반수의 아동·청소년은 학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없다고 응답하였고, 45.7%는 학교에서의 간행물 발행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하여,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 보장정도는 낮은 편임.
-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도 '학교의 종교행사에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31.9%로 보장정도가 낮았음.

–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자신이 다니는 학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47.0%는 자신의 학교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의견을 올릴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20.5%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학교의 자유게시판이 익명으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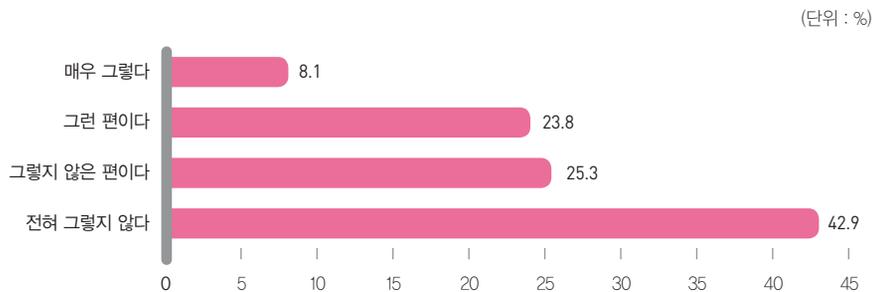
[그림4] 학교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익명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올릴 수 있다

– 학교 간행물 발행에 대한 자율권 보장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교지 및 학교신문을 학생들이 자율·독립적으로 만들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한 결과, 54.3%의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학교에서 자유롭게 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음. 그러나 학교에서의 간행물 발행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응답한 학생도 45.7%나 되는 것으로 보아, 아동·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그림5] 교지나 학교신문의 내용은 학생들이 자율적·독립적으로 만들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각 종교재단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종립학교 수는 2011년 기준으로 초·중·고·대학교를 통틀어 총 649개교에 이르며, 이는 전체 학교의 5.9%에 해당함. 우리나라의 경우 대다수의 청소년이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하기 보다는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는 경향이 있어 자신의 의사와는 다르게 종립학교에 배정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교에서 열리는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아동·청소년의 31.9%는 학교의 종교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수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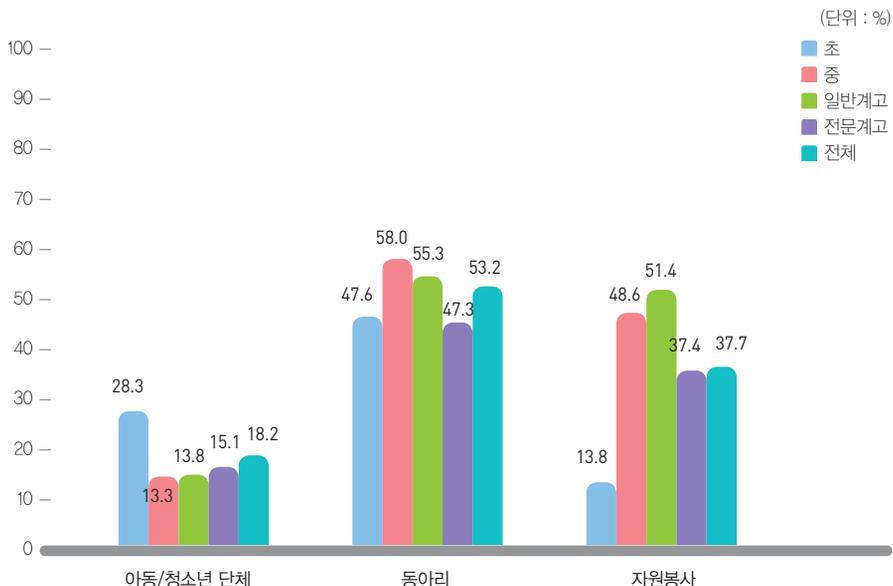
[그림6] 학교의 종교행사에 모든 학생이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3. 아동·청소년의 활동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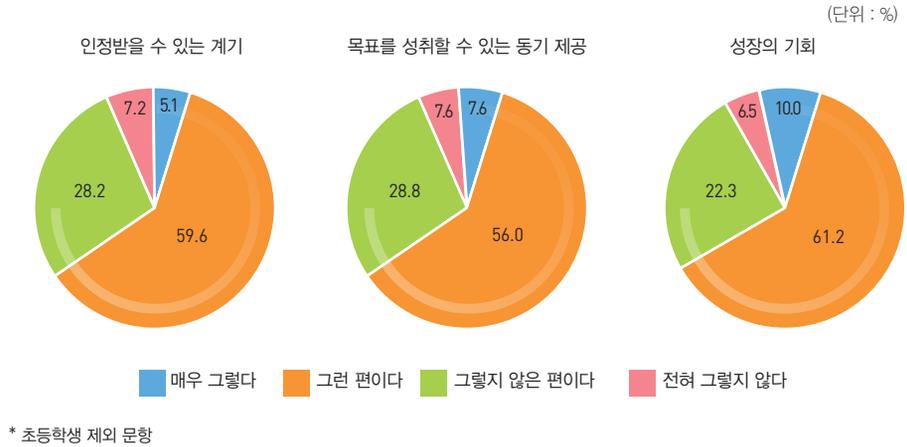
- 아동·청소년의 활동 참가율은 단체활동 18.2%, 동아리활동 53.2%, 자원봉사활동 37.7%로 높지 않은 편임.
- 아동/청소년활동의 효과 및 만족도에 대해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동기 제공,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의견에 각각 64.7%, 63.3%, 71.2%의 아동·청소년이 동의
- 자원봉사활동 참여이유는 초등학생은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해 보고 싶어서', 중·고등학생은 '성적에 반영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가장 많음.

- 최근 1년 동안 아동/청소년단체(예: 보이·걸스카우트, 아람단, 누리단, 한별단, 해양소년단, 우주소년단, RCY 등)에 가입하여 활동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18.2%, 취미나 문화 활동을 위해 동아리 활동을 한 적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53.2%,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은 37.7%로 아동·청소년의 활동 참가율은 높지 않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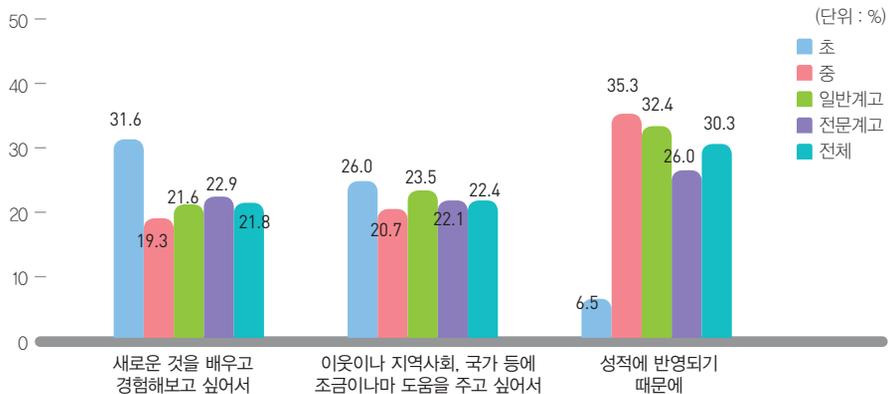
[그림7] 아동/청소년활동 참가율

- 아동·청소년활동의 효과 및 만족도에 대해서는, 64.7%의 아동·청소년이 아동·청소년활동이 인정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하였으며, 63.3%의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활동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준다고 응답하였고, 71.2%의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활동이 성장의 기회가 된다고 하였음.



[그림8] 아동/청소년활동에 대한 의견

- 아동·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이유는 초등학교의 경우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해보고 싶어서'가 31.6%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데 비해, 중·고등학생들은 '성적반영', '이웃, 지역사회, 국가에 도움', '새로운 것 학습 및 경험'의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이러한 차이는 중·고등학생들의 경우 자원봉사가 학교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중·고등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의무화시킨 것이 이들에게 자원봉사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보아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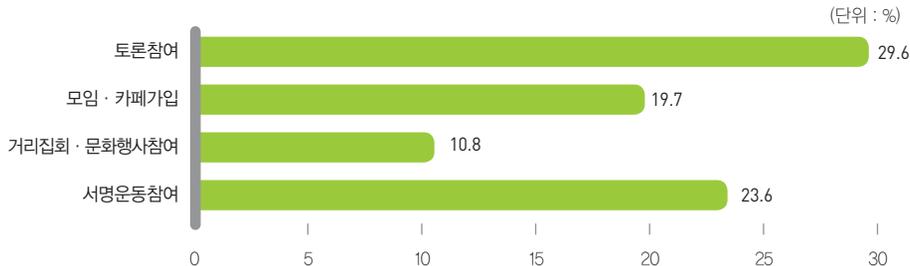
[그림9]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아동·청소년의 결사·집회의 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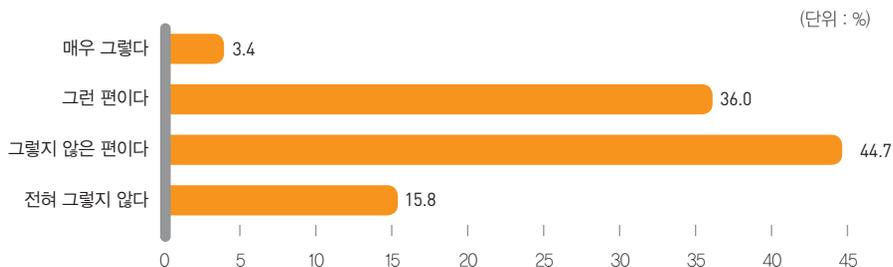
- 아동·청소년의 결사 및 집회 행동 경험률은 친구들과의 토론 참여(29.6%), 서명운동참여(23.6%) 순
- 청소년들의 10명 중 6명은 우리사회가 청소년의 결사·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

–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예: 환경오염문제, 한미FTA, 촛불집회, 선거 등)와 관련하여 결사 및 집회 행동을 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친구들과의 토론 참여(29.6%)의 경험률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명운동 참여(23.6%)의 경험률이 높았음. 친구들과의 토론 참여나 서명운동 참여는 청소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참여행동이라고 볼 수 있음.



[그림10] 최근 1년 동안 사회문제에 대해 참여활동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 청소년들의 60.5%는 우리사회가 청소년의 결사·집회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함.



[그림11] 우리사회는 청소년이 사회문제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모임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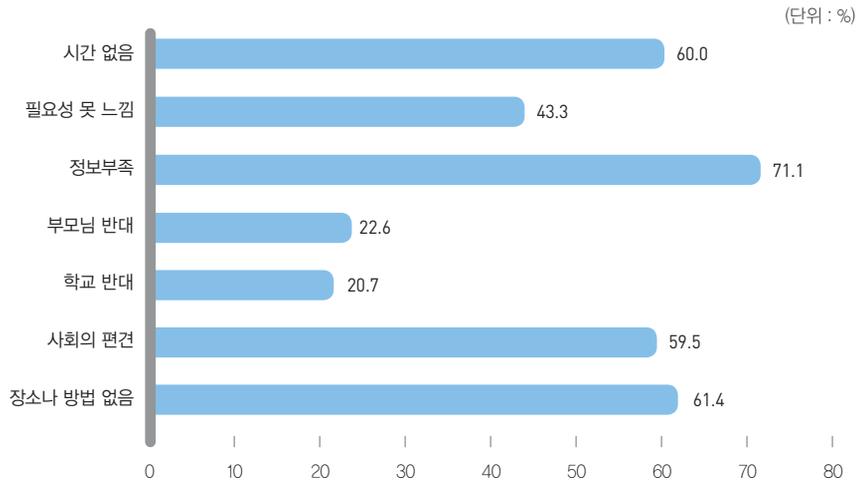
5. 아동·청소년의 참여권



- 참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71.1%),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공간이나 통로 없음(61.4%), 시간을 내기 어려움(60.0%)의 순
- 참여권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성적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학교와 사회 분위기 개선이 25.7%로 가장 높은 응답률
- 청소년의 33.0%는 선거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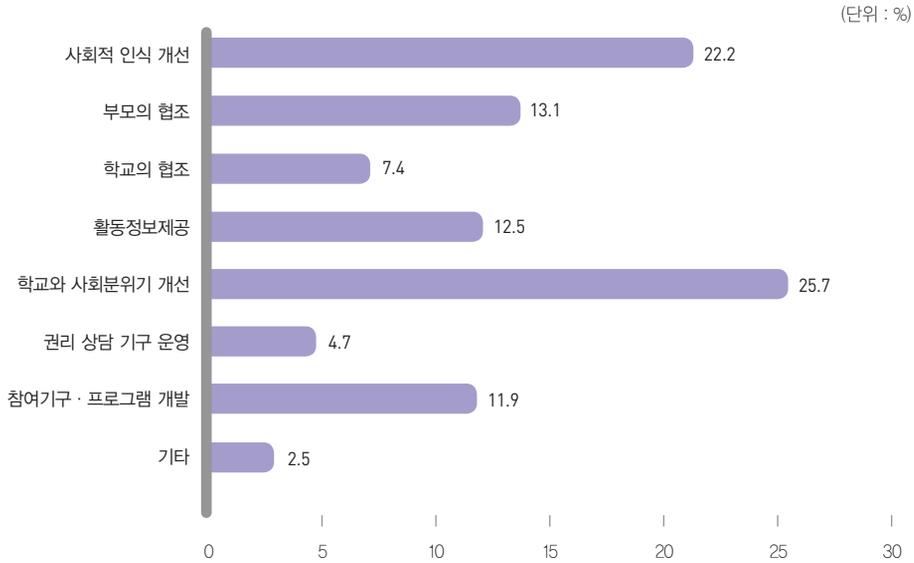
– 우리사회가 아동·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동·청소년은 21.9%에 지나지 않음.

– 아동·청소년들이 참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는 활동에 대한 정보 부족(71.1%),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만한 공간이나 통로 없음(61.4%), 시간을 내기 어려움(60.0%), 아동·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는 사회의 편견 때문(59.5%)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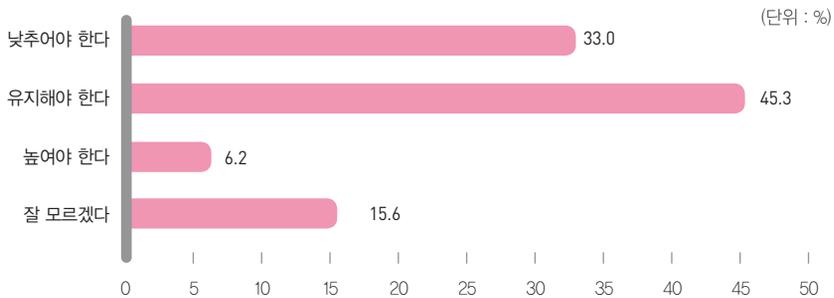
[그림12] '청소년의 참여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아동·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참여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성적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학교와 사회 분위기 개선'이 25.7%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22.2%), '부모님의 협조'(13.1%), '아동·청소년 참여에 대한 활동 정보 제공'(12.5%)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음.



[그림13] 청소년의 참여권을 향상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 청소년의 45.3%는 현행 선거연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낮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33.0%에 달하여, 약 10명 중 3~4명은 선거연령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뽑고자 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음.



* 초등학교 제외 문항

[그림14] 선거 가능연령을 더 낮추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114 교총빌딩 9/10층
114 Taebongro, Seocho-Gu, Seoul 137-715 Korea
Tel. 02-2188-8800 Fax. 02-2188-8869 www.nypi.re.kr

